



## 내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 확정!”

12만 사천시민 염원, 첫 개최지로 역사적 의미부각  
성공적 개최를 통한 시민화합 · 지역발전 계기 마련

사천시민들이 염원했던 2013년 제51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사천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되어 지난 4월 29일 제51회 도민체전 폐회식에서 다음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1:00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천시를 2013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경남도민체전 50년 역사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한 사천시의 불명예를 씻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정만규 시장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도민체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시의회와 체육인 등과의 협력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주경기장을 놓고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민체전 유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노력이 결국 2013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되는 밑거름이 되었고, 사천지명 사용 600년이 되는 해에 개최할 수 있어 곁경사를 맞게 됐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도민체전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해 2월 도민체전운영담당을 별도 신설하였고, 사업비 230여억원을 투입하여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체육시설 정비 공사를 작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 사천공설운동장도 45억원을 들여 4개월 잔디와 트랙정비, 본부석 개보수 등을 위한 공사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체전을 치루기 위해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준비하고 있는 등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2,000여명의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체전을 마을 것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 점검은 물론 깨끗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도3호선 명품거리 조성 등 환경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도민체전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26일(목)부터 거제에서 시작된 제51회 도민체전에 각 부서별 참관팀을 파견해 벤치마킹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 보다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3년은 사천탄생 60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 정만규 사천시장 2012년 읍면동 순방 중

정만규 사천시장은 시민소통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전 읍면동을 현장 순방하고 있다.

이번 순방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활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 주요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순방 내용은 읍면동의 주

요업무를 청취하고, 시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유관기관(사단법인)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민과의 간담회는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질의·답변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사업은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시는 향후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반영여부와 처리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으로 있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떠나갈 방침이다.

■ 읍면동 순방 일정

▲4월 24일 오후 사천읍 ▲25일 오전 정동면, 오후 사남면 ▲26일 오전 용현면 ▲30일 오전 축동면, 오후 곤양면 ▲5월 2일 오전 곤명면, 오후 서포면 ▲3일 오전 선구동, 오후 동서동 ▲4일 오전 벌음동, 오후 함촌동 ▲7일 오전 동서읍동, 오후 남양동



## 사천시, 국도 3호선 도로변 사계절 녹지조성 도민체전 개최 도시로 면모일신

사천시는 물류, 관광 등 교통의 중심축인 국도 3호선(사천IC~대방간) 20km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로수 3,711주, 가로화단 및 북측림 조성 등에 수목 200천주를 식재해 도로변 사계절 녹

지조성 사업을 통해 2013년 도민체전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이 사업은 3개년차 추진하는 국도변 녹지조성 사업의 마지막 해로 2012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주리 교차로 주

변의 3개교 교차로에 5만4천주, 송포농공단지 주변 방음벽의 5개소에 3천주, 사남농공단지 입구의 2개소에 가로화단 조성으로 1만1천주 등 합계 6만8천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3호선변은 사계절 녹지로 탈바꿈과 동시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길로 변모한다. 특히, 2013년 봄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어 체전개최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한다.

또, 관광객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관광인프라 구축효과까지 겸하게 된다.

2013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국도 3호선의 송산면 도로의 잡초가 무성한 법면에 개나리, 철쭉, 진달래 등을 심어 2013년에 예정된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과 함께 봄철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패니아들에게 환상적인 코스 제공으로 사천관광 이미지 쇄신을 기대하고 있다.

## 흥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비 300억원 전액 국비확보

### 공단조성 탄력·낙후된 서부지역 개발 청신호

국비확보 총력의 성과물로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  
노후 가산교 가설, 도로확충 선형개선 물류이동 원활  
인프라 구축·우수기업 유치·2,000여명 고용창출 기대

사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가산교 가설과 도로 선형개선을 포함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전액인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민선5기 취임이후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중앙부처 및 관계자를 만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기반시설비 전액을 국비 확보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시는 곤양면 흥사리 산 117번지 일원에 649,423㎡ 면적에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흥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축동IC에서 곤양면 흥사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1001호

선과 1002호선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또, 가산교가 노후되어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사고위험과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산업단지 진입로 확충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은 가뜰스 대비와도 같은 것으로 공단조성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진입로 확충 등 공기단축은 물론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에 활로를 찾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 전액을 국토해양부 올해 예산에 편성하여 가산교 가설(L=320m, B=10m)에 120억원, 진입로 선형개선 및 확·포장(L=4.8km, B=12m)에 150억원, 보상비 등에 30억원을 올해는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의 손실 보상과 경상남도와의 행정절차 진행 등을 마무리 하고, 가산교 가설, 진입도로 선형개선, 확·포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가산교는 40톤 이상의 대형 차량과 무거운 물류차량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2014년 산업단지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의 숙원 해결은 물론 낙후된 서부지역개발 가속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와 함께 흥사일반산업단지 물류이동 원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수기업 유

치로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 외에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예에 따른 농업용수 사업도 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100억원이 소요되는 오·폐수처리시설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지방도 1001호선의 곤양면 검정~와덕간(2.6km)도로 확·포장 사업도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어,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 사천시,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과제 확정 추진

### 209개 사무 평가과제로 선정·확정

사천시는 지난 4월 19일 2012년도 주요업무 평가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9개 사무를 평가과제로 선정·확정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담당별 1~2개씩 총 209개 주요과제를 제

출발아 과제별 난이도와 성과지표, 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선정된 주요업무는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 1월 최종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는 발굴·전파하고 부진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시정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부서간의 경쟁을 유도하

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의 시정우수시책」을 선정하여 우수시책 담당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 상황을 관리·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조직전반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 사천시장-여상규 국회의원당선자 간담회 사천지역 현안설명·국비확보 도움 요청

정만규 사천시장은 사천남해 하동 여상규 국회의원 당선자와 지난 4월 23일 열린민원실에서 ‘사천시정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가져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 약 50여 분간 34개의 사천구 주요현안을 브리핑하면서 국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통로박스과 굴곡으로 차량통행 불편 등 동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계속돼 왔던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을 위해 현재 1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3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천시는 내년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기부부담 국비 31억원, 도비 44억원 등의 조기 확보와 지역 최대 관심사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역시 조속

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종합장사 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6억원이 추가 필요한 부분과 KTX 진주~삼천포항연장운행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시는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비 부족분 12억원과 신촌-선진 연안정비 사업비 220억 원이

국비 전액 사업이지만 예산확보가 더딘 상태인 점도 알리면서 100억 원 정도가 올 하반기나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당선자가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실안관광단지 민자 유치와 각산-초양 해상케이블가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여상규 당선자는 정부에 산을 요구하는 시기가 6월초가 지어질수록 시간이 별로 없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비확보 우선순위를 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임용식

정만규 사천시장은 지난 4월 30일 사회복지9급 신규공무원 임용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사랑이 담긴 임용장을 수여했다.

금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공무원 가족(부모님)과 간부 공무원의 자녀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에게는 사랑을 담은 임용장을, 부모님 등 가족에게는 감사의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신규공무원 선서, 시장인사말씀 및 대화시간, 기념촬영,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만규 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민원을 대할 때 내 부모 내 형제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용장 수여식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은 그 동안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킨 보람은 물론 시장의 환경과 환대에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 사천시 출범 '제17주년 시민의 날' 경축행사 가저

## 5월 10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 열려

사천시 출범 제17주년을 맞아 12만 시민들이 이 날을 경축하고 시정발전을 더욱 더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및 시민 450여명을 초청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시민의 날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작년 16주년 행사 모습.

행사 주요내용은 체육대회를 각종 행사 등에서 수상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을 하고 기념사, 축사, 시민의 노래제창을 하게 된

강조해 시민의 자존심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공연을 통해 첨단항공우주산업, 가장 성공적인 외자유치지역, 그리고, 삼천포대교를 주축으로 남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미래산업 도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해 시민의 자존심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공연을 통해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솟아있는 사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12만 시민이 함께 축하하는 시민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 애향운동 10주년기념 부산4개역 사진전 성원에 감사합니다

고향 사천시 정만규 시장, 심봉근 전 도아대 총장, 재부 삼천포고 총동문회 이해형 회장, 대구향우회 겸[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 대구본부 정대오 회장, 대전향우회 겸[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 대전본부 이대식 회장, [43가보자]운동 주본부 김윤근 상임이사, 가천초등동창회 김옥동 회장, 재창원 차상돈 향우(총경) 재부산

김효명 향우(전 고교 교장) 등이 향우 동문을 대표해 테이프커팅 하여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선후배 동문 향우, 홍보해 주는 윌터 캠프와 대마라톤 회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 주본부 회장 천봉근(배)

### 부산 4개역 릴레이사진전시장 스케치

◆1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막하는 3월 22일, 아침부터 가느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은 하늘도 참 못된 심성을 가졌다며 짜증을 내다가도, 봄맞이 비료이니 호감을 갖기로 했다.

대전향우회 이대식 회장 일행이 "부산 왔어유. 자갈치에서 우산을 쓰고 구경중인데 점심식사 같이 하자."며 전화가 왔다. 6시 반. 먼저 온 행사지원을 맡은 후배들이 준비 자제를 갖추는 사이, 대구 부산의 선후배 동문 향우들이 나와서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는 중이다.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의 만남은 흔쾌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고향의 옛 5일 장날과 같았다.

10주년이라 특별히 초청한 정만규 시장 일행이 서울에서 오느라 조금 늦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 간단히 개막식을 끝내고 회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향 시장의 인사말이 43에향운 등에 대한 감사와 사천관광 등 시정의 소개와 함께 있었고, 주최 측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작심하고 준비한 "출향인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기념비"를 설립하여 출향인들이 첨방이 되어 행하는 애향하는 마음이 만대(萬代) 이어갈 수 있도록 표적을 세워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 청원서를 참찬한 전국향우들이 큰 목소리로 "정만규 사천시장님! 기념비를 세워주세요."하는 합창과 함께 그의 지를 담아 정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31일 토요일 오후, 전시장 한 곁에 서 있으니 중년 남자가 다가와 '사천시 녹도=포상팔국 중의 사물국(史勿國)본거지, 삼천시대 중국 일본 한국인의 유골 발굴, 1800년 전 국제무역항, 지금의 홍콩처럼 '이라고 해 놓은 녹도 유적지를 알리는 큰 사진막을 보여 물었다. "우리 역사라도 이런 것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 하시네" 간단한 설명을 듣고는 즐거운 얼굴로 걸어갔다.

는 반응이 달랐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닐지 몰라도 비교해 보자면 낯익대를 담그니 고기들이 확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점심때에는 식사하러 오가는 회사원들이 사진 본다고 비좁다. 우리 작품을 찍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 관심도가 다르니 정말 사진전하면서 이런 재미도 있어야 할 맛이 난다.

◆4월 5일 오후 3시경 설치완료. 시청역은 5.7번 출입구 쪽이 공간이 넓은 편으로, 이곳을 주 전시장(24점)으로 삼고 6.8번 출입구 쪽은 시청입구와 직결된 곳으로 약간 좁은 편이다. 그래도 이쪽에도 몇 점의 사진을 전시해야했기에 전시장의 2곳으로 분산되었다.

바쁜 일 없는 듯 서로 비비꼬며 걸어가 는 젊은 연인들과 무척 바쁜 걸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도 사진이 그들 눈에 띄는 가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젊은 아줌마 한분이 "어! 저기가 어디지?" 하면서 가던 길을 90도로 꺾어서 사진 쪽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아! ~ 정말 멋있네" 하면서 여러 사진들을 유심히 보고 갔다. 사진보고 이런 충동을 일으킨 분들은 사진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전시장은 장소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전시작품의 분위기와 품위가 같이 유지되어 그 전시효과를 충분히 내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철역의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창출

를 목적으로 지하철역 공간을 매점으로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작품 전시할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

◆5일 오후 3시, 울산 언양에 산다는 분이 몇 일전 중앙역에서 사진을 봤다며 자기는 수십 년을 외국으로 다니면서 살았다고 주최자를 만나보러 온다고 전화가 왔다. 우리 고향에 이런 좋은 자연경관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했다. 일본에서 살 때 알던 지인들이 많다고 하며 이분들에게 자기 고향을 소개하고 싶다고 사진을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 사천시를 일본인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른 시일 내 보내기로 하였다.

◆7일 오후 6시, 오늘은 재부 삼천포고등학교 18회 동기생 몇 명이 전시장을 격려차 방문하겠다고 한 날이다. 온 분들은 고향사진들을 훑어 보니 산과 골짜기 바다가 낮아지고 그 속에서 놀던 기억이 환한 모양이다. 그 옛날 자기가 겪었던 일들로 참 재미있게 서로 이야기하고 웃었다. 팔강 나무하러 올랐다가 절벽이 너무 가팔라서 어떡했던 기억과 등교할 때 가까운 길로 가기위해 와룡산을 넘어 등교하던 일 등 어릴 때 일들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감상했다.

◆4월 12일 오전, 싱싱한 젊음이 넘치는 거리 부산대학교 앞, 젊음이는 사진을 보는 것도 통통 튀듯 순간순간이 빠르고, 나이든 사람은 사진 한곳에 한참을 들여다 보며 무슨 맛을 느끼는 것인지 음미하듯 생각에 잠기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관람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피해서 가버리기 여러 차례. 이번에는 저쪽 가는 여학생 한 팀과 의논을 했다. "사진 보고있어라." "얼굴은 안 나오게 할테니." 간청해서 찍었다. "그냥 가냐?"고 하니 "애, 찍은 우리 사진 보고 가자"며 되돌아와 내가 찍은 자기들 사진을 보고는 "날씬하게 나왔네!" 하며 '신나' 하면서 갔다. (주최자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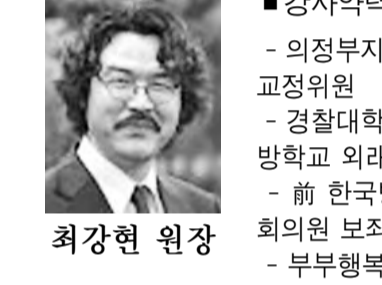
## 사천아카데미 제65강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 대화법'

### 5월17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2층)

사천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7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최강현씨를 초청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사천아카데미 제65강좌를 개최한다.

부부행복연구원 원장이자 제주 건강과 성박물관 관장인 최강현 강사는 '남자 구성애'라는 별명으로 성교육 전도사로 활동해 오면서 부부심리 상담 및 기사조정 전문가로 많은 상담과 방송, 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2012년 '월간인재경영' 기업 교육 명강사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최강현 강사는 경찰대학, 농협대학 외과교수, 중앙소방학교 외과교수도 강의하고 있으며, SBS <미워도 다시 한번>, MBC <오늘 아침>, KBS <생생 정보통>, tvN <백지연의 끝장 토론>, 스토리 온 <세기의 커플> 등 다수프로그램에



최강현 원장 부부행복연구원장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저서로는 '난 웬수랑 사니? 난 애인이랑 산다', '최강현 원장의 부부행복 클리닉' 등이 있다. 이번 강의는 1,000쌍의 이혼 위기부부를 만난 기사조정의 달인으로부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생활백서, 부부행복 지수 높이기 등의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사약력
  -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 법무부 교정위원
  - 경찰대학 · 농협대학 외과교수 / 중앙소방학교 외과교수
  - 前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국장 / 국회의원 보좌관
  - 부부행복연구원 원장(現)
  - 제주 건강과 성박물관 관장(現)
- 방송
  - SBS <미워도 다시 한번>
  - MBC <오늘 아침>
  - KBS <생생 정보통>
  - tvN <백지연의 끝장 토론>
  - TV 상담 부부 MC, 스토리 온 <세기의 커플> 등
- 주요 저서
  - 『난 웬수랑 사니? 난 애인이랑 산다』, 『최강현 원장의 부부행복 클리닉』

### 2012년 4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4월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4월의 물과 건강**  
물은 영양소라 부르기에 너무나 흔하여 일반적으로 영양소라고 부르지 않지만,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피의 78%가 물 인만큼 인체는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몸 안에서 물은 여러 영양소를 소화·흡수하고, 몸에서 생긴 불필요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또한 내장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여 신진대사를 돕고, 물질대사의 결과로 생긴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나 여름철에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보통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는 물 부족 증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심한 설사를 했거나 뜨거운 땀에서 땀이 많이 나는 일을 했을 때에는 식욕부진,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기며 심하면 죽게 된다. 또한 반대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피의 농도가 떨어져서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는 등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을 지키는데 물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기타 수돗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사항은 ☎1577-0600으로 문의하십시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수장명	K-water 사천정수장			관명정수장		
	수질기준	결과(사천)	결과(관명)	수질기준	결과(사천)	결과(관명)
1.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0	0	수소이온농도	5.8~8.5	7.2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이하	불검출	불검출	중금속	500mg/l 이하	92
3. 불소	1.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철	0.3mg/l 이하	불검출
4.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탁도	0.5NTU 이하	0.04
5.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1.1	1.0	냄새	이취 없음	적합
6. 유리잔류염소	4.0mg/l 이하	0.82	0.70	맛	이취 없음	적합
7.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0.031	0.023	황로아세틱에 16시드의 10개 항목	불검출	불검출
8. 클로로포름	0.08mg/l 이하	0.024	0.019	대장균의 28개 항목	불검출	불검출
9. 경도	300mg/l 이하	42	31			

2012년 4월 19일  
사천시청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2012년도 발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 등록신청 안내 : 읍·면·동 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
- 등록신청기간 : 2012. 4. 30 ~ 5. 31일까지
- 등록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산업담당)
- 등록신청서 방법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통장번호 등 작성 제출
- 신청대상 농지 :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동계작물 대상품목	하계작물 대상품목
감로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식류 (이탈리안리조리), 콩,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무류 (완두, 감자, 콩, 무), 조식류 (수단그라스류, 제비꽃(연꽃)), 땅콩, 콩, 고추	조식,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작물(감, 피, 울무), 콩, 녹두, 기타무류 (완두, 감, 콩, 무), 조식류 (수단그라스류, 제비꽃(연꽃)), 땅콩, 콩, 고추

- 제외 대상농지
  - "하천법"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의 가진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지급(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중에서 발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후계농업인, 전업농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종사, 농업종사를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전년 9백만원 이상.
- 지급(신청) 제외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
  - 발농업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위반자(허위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지급금액 전액회수하고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신청인 계좌오류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신청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831-3760, 3870, 3810

###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신청

- 등록신청 안내 : 읍·면·동 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 (☎ 055-831-3870)
- 등록신청기간 : 2012. 4. 15 ~ 6. 15일(60일간)
- 등록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산업담당)
- 등록신청서 방법
  - 등록신청서, 농장주(농지 소유자) 확인서, 통장번호 등 작성 제출
  - 신규 신청인은 등록신청기관에서 요청하는 증명서류 추가 제출로 자격 검증
- 신청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비·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제외 대상농지
  - 「하천법」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의 가진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
- 지급(신청)대상자 :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일부 위탁 운영하여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의 논 농업 종사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논 농업 종사, 논 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전년 9백만원 이상.
  -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급(신청) 제외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
  - 농업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또는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법률 위반자(허위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하여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신청인 계좌오류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청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 ☎831-3870

### 농촌생활문화체험교육 교육생 모집

1. 교육기간 : 5월 ~ 10월
2. 교육과정 : 3개 과정 (천연염색, 원예활동공개강좌, 전통 술 아카데미)
3. 교육대상 및 인원 : 과정별 40명 내외
4.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
5. 강사 : 분야별 전문가
6. 세부추진계획
  - 가. 행복한 농업체험, 원예활동 공개강좌

과정명	시 기	회수	인원	대상	내용
원예활동생원회	5월 2일(수)10:00-13:00 5월 4일(금)10:00-13:00	2	40	사천시민	빛깔가꾸기 기초 및 실습유용미생물 농업활용
원예활동생원회	10월 초	2	40	사천시민	가정원예활동 및 실습유용미생물 농업활용

### 다. 농림부산물들을 이용한 천연염색 교육

과정명	시 기	회수	인원	대상	내용
천연염색	6월~8월	4	20	사천시민	농림부산물(감, 쪽, 오메자 등)을 이용한 천연염색
전통 술 아카데미	5월 22일~23일 5월 30일	3	40	사천시민	기양주 제조 이론 및 실습 현장교육 1회

- \* 신청인원에 따라 교육과정이 축소 및 확대 운영될 수 있습니다.
- 7. 교육 신청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과정명	주 소	성 명	연 령	연락처
신청기간	교육시작 7일전까지 선착순 신청			
신청방법	천연염색 및 원예활동생활화 과정은 5월 31일까지 신청			
교육비	무료			
문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생활자원담당			☎831-3820

# 녹색성장 중추시설 '자원회수센터' 준공

## 국비 82억원 등 194억원 투입...사천시 일일 폐기물 80% 처리

사천시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의 위생적인 소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사천시 자원회수센터」가 지난 4월 17일 사천시청 및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인근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1997년에 설치된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사용연수 도래로 잦은 고장과 소각 효율이 저하되어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해 왔으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로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 필요에 따라 이번 센터를 준공하게 되었다.

자원회수센터는 사천그린(주)과 투자실험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

개월만인 올해 4월 8일에 준공을 맞게 되었다.

사업비는 국비 82억원과 민간회사에서 112억을 합쳐 총 19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15년간 민간이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시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 9,435㎡, 건축연면적 3,215㎡로 하수슬러지를 포함해 일일 48톤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이는 사천시에서 배출되는 일일 폐기물의 80%를 처리하는 용량이다.

시는 자원회수센터(소각장)가 준공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 처리는 물론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월 17일 자원회수센터 준공식에서 정만규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는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쓰

레기 없는 건강한 사천 만들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2012년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

## '실버들의 열정' 이 아름답다

사천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선정된 사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최인태)는 2012년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지난 4월 26일 11시에 농업인 전용회관 교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천시에서 사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바이시클 에코마을'과 '농촌공예 체험'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며, '교통질서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와는 달리 참여노인의 기능인력 양성, 근로능력 향상,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바이시클 에코마을' 사업은 아파트, 관공서, 회사, 개인, 단체 등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



거 및 기증 받아 수리 관매하거나 기증하는 사업이며, '농촌공예 체험' 사업은 농촌체험학습 및 농촌관광을 오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미니 장승만들기, 솟대 만들기, 목공예품 제작 등의 체험 교육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총 25명이 노인이 참여하여

소득창출과 자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천시와 사천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2012년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통해 점차적으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고기 조각상.



삼천포 아가씨상.

## 노산공원의 아름다운 조각상

### 4월 18일 내·외빈 200여명 참석 제막식 가져

사천시는 지난 4월 18일 팔포 횡단간 앞 방파제에서 사천시청,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조각상 제막식을 가졌다. 민선5기 정만규시장의 공약사

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서금동 101-64번지선 공유수면에 조형물 2점(삼천포아가씨상, 물고기상)과 해안 목재데크로드 114m를 설치한 것이다.

이 조각상은 공무원 및 동주민 500여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삼천포 아가씨상과 지역에 서식하는 볼락 등의 물고기상을 주민들이 선호해 건립하게 되었다.

「삼천포아가씨상」은 은방울자매가 1965년에 불러 큰 인기를 끌었던 삼천포아가씨 노래가사에 나오는 여인을 형상화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상」은 볼락과 도미, 상괭이, 전어 등 삼천포항

인근에서 서식하였거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4종의 물고기를 형상화 하였다.

시는 이번 사업 준공으로 공원 이용객들이 해안데크로드를 거닐면서 삼천포 앞바다의 수려한 절경과 아름다운 조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추진

사천시는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시는 지난 3월 16일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

고, 대형유통점의 심야영업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월2회(월, 목) 일요일을 휴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5월 중에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중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오전 8시부터 지정까지로 영업을 제한받게 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22일 대형유통점 관계자와 3월 22일에는 전통시장, 중소유통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사천시에는 홈플러스 1곳, 이마트 1곳, 탑마트 2곳, 롯데마트 1곳 등 모두 5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 공무원칼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이 늘면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도 많아져, 생활폐기물 전체 발생량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위생문제 등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여러모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으며, 국가적인 경제 손실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 온난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연간 약 500만톤이며 그 경제적 가치는 약 20조원, 처리과정에서도 약 8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한 음식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생산·유통·조리 단계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식량자원의 고갈문제 역시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진한 상처를 선호하는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추진되어 이것이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사업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이란 비전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이상 저감을 위해 감량과무 사업장 확대, 국민 음식문화개선 운동 등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까지 도시지역(14개 시군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정부 감량정책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로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생활속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천하는, 그리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우리 시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야 한다.

환경사업소 청소담당 하현우

**디지털 TV 방송 전환, 정부지원 받으세요!**  
12월 31일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디지털 TV 방송 전환  
아날로그 TV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아날로그 TV를 달리는 지역방송이 나오는 가구는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지원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11.10.10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유리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간판이나 게시시설을 표시(설치)하고자 할 경우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제2조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탁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조례로 정하는 용도

**주요내용**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규모의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 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①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규모의 건물주가 「간판표시 계획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  
②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 시장이 처리  
③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라 유리외광고물 허가 신고를 하여 시장에게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함

**기타 안내 사항**  
-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외 유리외광고물의 허가 신고는 종전과 동일함  
- 시행일 : 2011. 10. 10일 이후 신청분  
-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천시청 건축디자인 담당 (☎ 83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 신고 요령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른 간판(광고판)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고는 이렇게...

**○근거 법** : 「유리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적용대상**  
2011.10.10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유리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간판이나 게시시설을 표시(설치)하고자 할 경우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제2조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탁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조례로 정하는 용도

**○주요내용**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규모의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 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①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규모의 건물주가 「간판표시 계획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  
②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 시장이 처리  
③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따라 유리외광고물 허가 신고를 하여 시장에게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함

**○기타 안내 사항**  
-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외 유리외광고물의 허가 신고는 종전과 동일함  
- 시행일 : 2011. 10. 10일 이후 신청분  
-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천시청 건축디자인 담당 (☎ 83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봄철을 맞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법

봄철을 맞이하여 야유회, 현장학습, 음식물의 취급 부주의로 집단설사(식중독)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감기 및 안과질환 등 발생이 우려되오니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 비누칠을 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음  
- 손수건 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도록 함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유행성이하선염은 접촉이나 비말(飛沫)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수두**  
-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 전염력 높음.  
-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등교금지  
- 외출 후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 전염력이 강하여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발병이 많음  
- 4월부터 발생이 증가하여 여름철 발생빈도가 높음  
- 수시로 비누칠을 한 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 것  
- 수건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사용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하여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철저  
- 식수는 끓인 물이나, 충분히 가열 조리된 음식만 섭취  
\* 문의처 : 보건소 방역담당 ☎ 831-3623

### 『2012년 세계인의 날 어울림』 행사 개최

제6회 세계인의 날 맞이하여 다문화 시대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2012년 세계인의 날 어울림』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2. 5. 20(일) 11:00  
■장 소 : 사천체육관(사천을 소재)  
■참 석 : 외국인주민 및 일반시민 350명  
■주 최 : 사천시  
■주요내용 : 기념식, 놀이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

명예시민기재단 소식



성큼 봄이 왔나 싶더니 날씨가 자주 심술을 부려 바깥나들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주말인 어제에도 역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들이를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구름이 점점 열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그동안 버려두었던 삼천포 바닷가 길을 작정하고 걸겠다고 마음먹었다.

요즘은 걷기 열풍이 불어 각 지자체마다 걷기구간을 개발, 홍보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소개할 길은 사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걷기구간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 친숙한 길이고 개인적인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라서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바람으로 바닷가길을 기획해 보았다.

내가 선정한 바닷가길 1구간은 남일대해수욕장을 지나 진빌전망대-신항만-통창공원-노산공원-등대-서부시장-동서공원-대방굴항을 지나 연육교를 건너 늑도까지이다.

오전 9시 30분 간편하게 차려 입고 집을 나서 남일대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남일대해수욕장 입구에서 방향을 틀어 축주장으로

# 삼천포 바닷가 길로 오이소

## 수려한 해안 절경 곳곳에 공원, 대교 유채꽃 만발

가다보면 코끼리바위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다. 어제 내린 비로 길가의 들꽃과 풀잎에 매달린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인다. 코끼리초소 앞에서 다시 남일대해수욕장을 돌아 진빌전망대로 향했다. 바닷가에 세워진 산책로를 따라 갯내음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다. 제법 거세게 부는 바람에 밀려온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허연 포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바닷가 길을 따라 진빌전망대로 들어섰다. 진빌전망대에서 바라본 삼천포항의 모습은 아담하고 정겹다. 신항만의 넓은 부지가 마치 비행장 활주로처럼 길게 펼쳐져 있고, 전에는 볼 수 없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번에 새로 취항한 제주행 화물선박이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신항만을 둘러 팔포로 향했다. 최근에 단장한 통창공원에 올라 정자에서 잠시 쉬다가 팔포횃집잔치를 지나 노산공원에 도착했다. 말로만 듣던 삼천포아가씨상을 직접 보았다. 은방울자매의 '삼천포 아가씨' 노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돌아와요, 네~돌아와요, 네~삼천포 내 고향으로~"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이 아가씨의 고향도 나와 같은 삼천포란다.

노산공원을 지나 서부시장으로 향했다. 서부시장에는 우리

지역의 싱싱하고 맛난 수산물들이 가득 펼쳐져 있어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찬 곳이다. 특히 우리고장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은 꼭 한 번 들러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휴일이라 여전히 관광객들로 북적댄다. 오늘은 유난히 해산물이 많이 보인다. 서부시장을 지나 새로 단장한 동서공원에 올라왔다. 전망대에선 멋진 풍치가 여유롭게 돌아간다. 대방굴항을 향해 걸다보니 손님을 배운 유람선이 선착장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연육교너머로 노란유채꽃이 봄햇살에 눈부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마음이 바빠진다. 서둘러 대교를 지나 유채꽃밭 속으로 들어서니 만개한 걷기코스도 보인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는 관광객에서 내린 삼천포들이 너도나도 우리고장의 경치를 즐기고 있다. 큰 카메라로 삼각대를 짊어서니 단개한 걷기코스도 보인다. 다들 눈으로 맘으로 카메라로 앞바다의 절경을 담느라 분주하다. 나 역시 즐겁고 행복해진다.

오후 1시 20분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늑도에 도착했다.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니 오후 2시에 늑도를 지났다. 늑도의 가게에서 간식을 먹고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삼천포바닷길 걷기를 마쳤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진빌전망대 쪽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얽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몇 번 헤매기도 했다. 그리고 진빌전망대에 세워진 삼천포 알바다 정경 사진은 짜여진 안내판에 맞추어 제작하다보니 가로세로 비율이 달라 다소 엉뚱한 모습이었다. 또한 곳곳에 해안가 도로 지반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고, 마구 버려진 생활쓰레기가 눈에 거슬리기도 했다.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걷기가 유행하고 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강릉 바우길,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걷기코스가 많지만, 우리고장 바닷가길도 결코 그곳에 비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바로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국립공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런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에 수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고장을 찾아오고 있지만, 정작 이곳을 텃밭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고장에 대해 무관심한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겠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겠다.

명예시민기자 / 장을너

# 날말맞히기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 <가로힌트>

- ① 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의 가지와 맞닿아 결이 서로 통한 것.
- ④ 재산형의 하나.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 벌로 물리는 돈. 벌과금.
- ⑤ 권세나 부자가 되어 집 없이 방문객으로 시장을 이루다 시피 함. ○○○을 이루다.
- ⑥ 사람이나 생물이 세상에 나서 지낸 햇수. 연령. ○○가 들다. 그의 ○○는 서른둘이다.
- ⑧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가을에 여러 가지 색의 두상화가 피는데, 청초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재배함.
- ⑩ 직위가 오름. 입사 후 10년 만에 겨우 과장으로 ○○되었다.
- ⑫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 글. ○○를 내다. ○○를 받다.
- ⑬ 같은 학교나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 길에서 대학 ○○을 만나다.
- ⑮ 직업적으로 개그를 하는 사람.
- ⑱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글.

### <가로힌트>

- ①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했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 하는 금액. 그는 종신 ○○을 받고 있다.
- ② 손가락 끝이나 안쪽에 있는 피부의 무늬. 사람이마다 다르며 일정 변하지 않음. ○○을 채취하다.
- ③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 고인의 ○○을 담은 테이프.
- ④ 넓적하게 벌어진 코.
- ⑤ 앞으로 나아가. ○○을 위한 후퇴.
- ⑦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⑧ 어머니의 자매.
- ⑨ 스무 번까지의 질문으로 어떤 문제를 알아맞히게 하는 오락.
- ⑫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 사부. ○○의 가르침에 따라.
- ⑬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편지. ○○인사를 드리다.
- ⑱ 전하여 들리는 말. 이상한 ○○○이 들다. ○○○이 퍼지다.

### ■ 날말퀴즈 응모요령 ■

날말 맞히기 정답을 오려붙여 2012년 5월 18일까지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천시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매	니	메	미	선	두
송	테	발	발	도	표
이	니스	시	시	기	역
전	스	튜	머	드	누
석	별	회	별	전	목
상	상	수	전	목	개
					그

### 2012년 4월호 정답 및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벌리동 김다형 / 사천을 이승용
- 선구동 이승운 / 정동면 박성철
- 벌리동 이인숙 / 용강동 박혜영
- 벌리동 김보승 / 진주시 상평동 백희자
- 벌리동 김경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김금란



# 기회의 균등화

은 대부분 낮 시간대로 제한적이다.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현재 어떤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폭이 좁다.

특히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소규모 영세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다.

실업자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배우려고 해도 낮 시간대로 한정된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의 교육을 마음만 먹으면 언

제든지 교육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에서조차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우익한 강의나 교육도 받는 사람만 받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 실제로 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이들 일지도 모른다. 교육학 습을 통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직장을 다니더라도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 교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반면에 근로빈곤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빼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불안한 고용형태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 이왕이면 저녁시간에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각종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문구를 넣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학교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안다. 진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나 강의, 그 밖의 행사들이 한정된 계층, 그러니까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행사, 아는 사람만 아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천시야카데미의 주제별 강좌,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사천시민들이 인근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관내에서 얼마든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에 발맞추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설도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미리 조사하고,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설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명예시민기자 / 김경실

평소에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더니 항상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는 편이다. 사천시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실시하는 학습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에 대해 꾸준히 참여해왔다.

모집인원이나, 프로그램 내용, 시간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직접 전화도 해 보고, 참여한 경험도 있다. 매번 찾아보기는 하지만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에, 학습시간까지 맞지 않아 실망만 하고 돌아선 적이 많다.

특히 대부분 학습시간이나 참여시간이 낮 시간대로 정해져 있어서 아쉬움이 컸다. 직장을 다니면서 참여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시간대가 가장 중요한 요 인임을 알게 되었다.

현재도 각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모집을 하고 있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

# 북스타트로 시작하는 그림책 이야기



북스타트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 그림책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0일 사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강좌가 열렸다.

이 강좌는 지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천시 정동면에 위치한 삼성아파트 책마루도서관과 송보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함께 준비했다. 이날 강의를 해주신 어영수 선생님은 북스타트 코리아 그림책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그는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북스타트 운동의 배경과 좋은 그림책에 대한 이해, 연령별 도서 선택 방법 등 유익한 정보가 되는 강의를 해주었다.

북스타트 운동은 1992년 영국 버밍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으로 신세대들이 책을 읽지 않아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출발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릴때부터 책과 친해진 아이들은 자라면서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 청소년, 나아가 책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북스타트 운동은 한 시민 단체인 '책 읽는 사회'에서 2003년부터 몇 개의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지금은 많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해마다 2-3개의 작은도서관에 재정을 지원하며 북스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스타트란 아가와 부모가 그림책을 앞에 놓고 깔깔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행복한 프로그램이다.

독서의 기본은 누가 뭐래도 '재미'가 우선이다. 재미없는 그림책 읽기는 숙제이며 고된 노동이다.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놀이처럼 즐겁고 재미있는 책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가 있다.

그림책의 글을 읽는 단계를 시작으로 그림책의 그림을 읽는 단계, 그림책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마음을 읽는 단계, 그림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읽는 단계,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통해 세계의 문제를 읽는 단계...이렇게 그림책을 통해 사고를 확장해 간다면 성공적인 그림책 읽기가 할 수 있겠다.

이날 많은 책들이 소개되었는데 제목만 나열한다면 '심', '검은고양이', '우리들의 토끼님', '종이봉지 공주', '엄마가 미안해', '대머리 사막' 등이 있다.

5월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이다. 올 5월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그리고 보니 사천은 그림책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뜨거운 것 같다.)

명예시민기자 / 강예란

# 삼천포여고 2년 연속 전국 제패

## 2012 연맹회장기 남녀중고농구대회 우승

삼천포여고가 지난 4월 12일 삼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12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여고부 결승전에서 삼천포여고는 라이벌 인성여고를 55-48로 누르고 정상에 올라 지난 대회에 이어 연속 2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 1월 영광에서 벌어진 WKBL총체 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이날 결승에서 삼천포여고는 초반부터 인성여고를 압박하며 1쿼터를 17-9로 달아났다. 전반을 26-16으로 마감한 삼천포여고는 고비 때마다 강이슬과 김한비의 연속 골이 터지며 인성여고의 추격을 따돌리며 정상 등극에 성공했다.

삼천포여고 김한비는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상을 받았고, 노재운 감독과 박정숙 코치는 각각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 결혼이주민 조춘화씨 간호조무사 합격

사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인 중국동포 출신의 조춘화(38세)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12년 전 중국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간호조무사가 된 로렐 A 마나다(35, 필리핀) 씨를 보며 그녀도 간호조무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길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국에서의 고교 졸업증명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어려웠기 때문

에 조씨는 국내서 학력을 인정받기로 결심하고 2010년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하였고, 내국인도 쉽지 않은 12년 과정의 학력을 단 1년 만에 취득했다. 이후 조씨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번 시험 합격에 조씨는 "아픈 환자들을 가족 같이 보살피면서, 더 어렵고 힘든 다문화가정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 사천시 어린이고기 방류사업 추진

사천시는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11월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불락, 감성돔, 붉은 송병이 등 13종 263만마리의 어린이고기 4종과 종패를 방류한다.

이번 어린이고기 방류사업은 연안 어장환경의 오염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등 어업생산기반 약화로 인해 침체 일로에 있는 수산업 경기를 활성화하고, 수산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다.

어린이고기 방류지역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과 연안비다목적 사업지, 인공어초 시설 지역 등 어

종별 서식이 적합한 29곳으로 시에서는 어린이고기 방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불법어업 예방과 해적생물 유제 등 자율적 어장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고기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이고기나 다량 포획되는 불법어업을 추방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천읍

### 제7회 사천읍민체육대회 개최



사천읍체육회(회장 이병기)와 사천읍(읍장 조명중)은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민규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읍민의 화합, 애환심 고취를 위해 사천읍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주요행사로에는 개회식과 종목별 체육대회, 어울림한마당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체육대회는 지난 해 마을대항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읍민화합 위주로 개최되었다.

읍 관계자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읍민들이 참석하여 애환심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하였다.

## 정동면

### 정동면 여성재향군인회 와룡문화제 나눔식당 운영



정동면 여성재향군인회(회장 안태순)는 4월 6일(금)부터 4월 9일(월)까지 용현면 선진리성 와룡문화제 행사장에서 관내 독거노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날 나눔식당에서는 (주)사랑노인요양센터 어르신 30여명을 초청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와룡문화제를 방문한 상춘객에게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떡거리를 판매하였다.

행사를 통한 판매수익금은 관내 소외계층 이웃돕기에 전달할 예정이며, 태극기 100개를 구입하여 국기가 없는 독거노인가정에 무료보급하는 등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태순 회장은 "와룡문화제 기간동안 어려운 이웃돕기 식당을 찾아준 많은 시민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참여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남면

### 제14회 사남면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사남면체육회(회장 오점식)에서 주관하고 사남면(면장 강연주)과 기관단체에서 후원하는 제14회 사남면민체육대회를 지난 29일 삼성초등학교 교정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면민체육대회는 사남면민을 비롯한 출향인사 2천여명이 참여하여 입장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육상, 씨름, P.K경기, 윷놀이, 줄다리기, 어린이 필드게임 및 노인공굴리기, 게이트볼 경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화합한마당 노래자랑을 통해 그 흥을 한껏 돋우었다.

사남면체육회 관계자는 "면민체육대회는 1만 2천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면민대화합을 위한 행사인 만큼 탐벌 과도한 경쟁보다는 면민이 한데 어울려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개최소감을 밝혔다.

### 사남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개최

사남면(면장 강연주)과 자연보호사남면협의회(회장 최진국)은 지난 19일 사천학생야영수련원에서 사남면 관내 조직·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가꾸기 행사를 통해 각종 쓰레기와 오물 10톤을 수거하였으며 특히, 농로와 하천에 버려진 농약병, 폐비닐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 용현면

### 용현면 재능나눔 확산에 앞장서



사천시에 소재한 용현초등학교(교장 강대백)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연구센터(센터장 정원옥), 용현면사무소(면장 박명영)는 지난 24일 면사무소에서 학부모단체, 해양연구센터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능 나누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의 주체인 용현초등학교, 해양연구센터, 용현면은 "지역사회가 교육활동 중심의 재능기부로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이번 협약을 기회로 다양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 가정의 달 맞아 청화회 경로잔치 열어

용현면 청년화합회(회장 박상일)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9일 용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경로잔치는 다양한 음식과 각종 공연, 장기자랑 그리고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줌으로써 즐거움과 훈훈한 감동을 선사함과 아울러 어른 공경 분위기와 효 사상 고취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 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이 모여 1999년부터 경로 위안잔치, 독거노인 연탄배달, 김장김치 나눔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 축동면

### 세계 물의 날(3.22)연계 국토 대청결 활동 전개



축동면(면장 조임덕)은 지난 3월 27일(화) 가산대교(축동면 가산리 소재)밑에서 국토대청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물의 소중한 함 및 물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시켰으며 자연스러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곤양면

### 곤양면 어르신 일일효도관광 나서

곤양청년회(회장 김용태)와 작은사랑큰행복회(회장 조남순)는 어버이 달을

맞아 지난 12일(목) 곤양면 관내 노인 160여명을 초청하여 버스 5대로 일일효도관광을 실시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 30여명은 일일 자원봉사자로 나서 노인들을 모시고 전라도 남원일원에서 서커스 관람과 주요 명소관광 등의 일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두 단체는 2년마다 자체기금으로 경로잔치와 일일효도관광 등 경로행사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연말 및 명절 이웃돕기와 장애인 목욕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모범 봉사단체로서 곤양면 내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다.

곤양청년회와 작은사랑큰행복회는 어려운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의 보람과 행복을 느꼈고, 향후 지역 봉사활동 및 경로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곤명면

### 곤명면 법질서지킴이 캠페인 실시



곤명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강상복)와 곤명면(면장 이정호)은 지난 3월 28일 원전삼거리 일대에서 곤명면 법질서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곤명면 법질서 확립 및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 쌓기에 전 주민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곤명면 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실시

곤명면 방위협의회(회장 이영환)는 지난 7일(화) 방위협의회 회원과 기관단체장, 곤명면장 및 면직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도라산역, 제3땅굴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토분단의 아픔을 직접 보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회원들은 통일에 대한 기관단체장으로서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고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국방에 소비되는 물자와 인력을 다른 곳으로 운용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서포면

### 새봄맞이 식목행사 및 환경가꾸기 행사 실시



새봄맞이 식목행사 및 환경가꾸기 행사가 지난 3월 31일 별주부전의 전설이 살아있는 비토섬에서 비토바다사랑청년회, 자연보호서포면협의회, 각 자생단체회원 및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벚꽃 식목행사를 주관한 벚꽃연합회 총무 최수근 사천시의원은 "나무식재 행사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 화두인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재앙의 예방을 위해 식목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토섬을 벚꽃단지로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비토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금진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축제 열려

금진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축제가 지난 8일 구(舊) 금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단체졸업기 등의 탐벌 활동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음료와 다과를 즐기면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축제에는 관의 서포함우회 및 인근 주민 등도 함께 참석하여 모교 동문들만의 시간이 아닌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마음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 동서동

### 『동서동 나눔자전거』희망전달



동서동주민센터(동장 노영주)와 동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찬)는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기증받아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금) 12:00 대방초등학교에서 자전거가 필요한 어린이 10명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4주간의 수리과정을 거쳐 나눔자전거로 탈바꿈하여 기부하는 것이다.

## 선구동

### 제12회 선구동민 한마음 경로잔치 행사 펼쳐

선구동청년회(회장 김경동)는 청년회원 및 선구동 조직단체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8일 11시부터 삼천포초등학교 강당에서 선구동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경로잔치 행사를 가졌다.

제12회째 경로잔치 행사는 약 1,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가수, 각설이 공연, 점심점대, 한마당 장기자랑, 효자효부상, 장수부부상 수상 및 행운권 추첨행사로 진행되었다. 김경동 회장은 "학가족과 시대를 살면서 차츰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깨끗한 선구동 환경가꾸기 행사 펼쳐



선구동자연보호협의회(회장 정철용)는 선구동주민센터(동장 이영재)은 지난 27일 10시부터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선구동조직단체회원 및 삼천포초등학교 학생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선구동 환경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각산 등산로, 망산공원, 한내천 일원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법쓰레기투기 금지와 마을대청소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같이 병행하였으며, 특히 각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 산불예방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철용 회장은 "행사에 같이 동참해준 삼천포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가 매년 한번 실시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동서금동

### 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제주시 우도면 방문



사천시 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창조)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자매결연지인 제주시 우도면을 방문하여 우호증진 및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와 지역 산업 및 제4회 우도면 소리축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1998년 이후 금년이 제19차 교류방문으로서 동서금동 전어축제와 우도면의 소리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과 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축제홍보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삼천포-제주간 카페리호가 운행됨에 따라 카페리호를 이용하여 제주시 우도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 동서금동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동주민센터와 전 조직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28일(수)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차원에서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내천 및 관내 도로변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므로써 주민 및 행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김법권 동서금동장은 "이번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우리 동이 새봄을 맞았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생단체조직원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별용동

### 삼벌회, 제24회 효자·효부 표창 및 경로잔치 열어



사천지역봉사단체인 삼벌회(회장 오문환)가 16일 삼천포체육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500여명을 모시고 제24회 효자·효부 시상과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시상식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다과 등 오찬과 함께 사물놀이, 풍물공연,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경로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을 즐겁게 했다.

### 바르게살기운동별용동위원회 법질서확립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별용동위원회(회장 정유미)는 지난달 25일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회원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확립 및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저탄소 녹색생태에 앞장서자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위한 현수막 게첨, 홍보용 전단지 배부했다.

한편, 정유미 위원장은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향촌동

### 향촌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개최



향촌동주민센터(동장 이종주)와 자연보호향촌동협의회(회장 최동환)는 지난 18일 삼천포농협 봉남사업소에서 향촌동 관내 조직단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봉남천과 봉남천 일대 농로에 버려진 각종 폐비닐과 농약병 등을 수거하여 영농 불편 해소와 농촌 지역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폐비닐과 농약병, 각종 잡쓰레기 등 쓰레기 5톤을 수거하였다.

한편 향촌동에서는 지역민과 농민들에게 농정 쓰레기는 반드시 농가로 회수하여 농정쓰레기 폐기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5회 향촌동민 건강걷기행사 개최

지난 28일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에서는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향촌동민 건강걷기행사가 개최되었다.

향촌동체육회(회장 김민수)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을 시작으로 남일대 출렁다리, 신항 해안 데크길, 진일전망대, 남일대리조트에 이르는 멋진 해안 산책 코스를 온 가족이 함께 걸어 신선한 바다바람과 절경을 만끽하였을 뿐 아니라 걸기를 통한 동민화합을 제고시켰다.

한편 이날에는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과 함께 전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여 행사의 재미와 의미를 더했다.

## 남양동

### 남양동 전 조직단체 깨끗한 남양동가꾸기 행사 참여

남양동주민센터(동장 조현문)에서는 4월 27일 15시부터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남양동 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양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임두범)에서 주관하고 남양동 산하 전조직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와룡산 등산로와 광포 해안변, 남양동 관내 주요 도로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새봄을 맞아 사천시를 찾는 많은 외래 상춘객들에게 깨끗한 관광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조현문 동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는 생활환경 정비와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어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이 추진되어 우리의 후손에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물려줄 것"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당부하였다.

### 남양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남양동주민센터(동장 조현문)에서는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남양파출소, 남양중학교, 남양초등학교와 협의하여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야간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남양동주민센터와 남양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박중권)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활동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 청소년의 개성과 끼 마음껏 펼쳐라

## 2012년 “무지개마당” 선포식...전시·체험·공연 등 문화행사 풍성

사천시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는 4월 21일 오후 2시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의 숨은 개성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열린 공간인 2012년 청소년문화존 “무지개마당”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 행사에서는 문화존 선포와 테이프커팅, 과학체험, 종이공예, 핀버튼, 천연염색만들기, 쿠키클레이, 요술풍선, 페이스 등의 전시·체험마당과 풍물, 밴드, 모듬북, 쿠푸,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마당이 펼쳐졌다.

2012년 청소년문화존 프로그램은 4월 2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2년 10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하게 된다.

2012년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사천시 청소년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 조성을 지역중심의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youthsacheon.com>)와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070-8145-8034)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가 개최한 2012 청소년문화존 “무지개마당” 행사에서 밴드공연을 하는 청소년들.

# ‘93일간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여수세계박람회’로 놀러 오세요.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축원하는 지구촌 해양축제, 여수세계박람회가 이제 5월12일 시작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19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기구(BIE)공인 해양박람회로서 전세계 105개국 참가하고 UN을 비롯한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바다 위 전시관인 주제관, 106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관 등 23개 전시관과 각종 체험시설,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등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전시를 선보인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 ‘스카이타워’, 첨단 해양문화예술관인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EDG)’ 등의 볼거리가 있으며, 입장권으로 박람회장내 모든 전시관과 아쿠아리움 및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기회가 제공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종류 및 요금

◆ 예매기간: 2012년 1월 1일 ~ 4월 30일까지 (특가 할인 5%)

구분	연령구분	요금(원)	비고
보통권	정상가	33,000 (39,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25,000 (30,500)	
	어린이/장애	19,000 (23,000)	
특별일권	정상가	40,000 (48,0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30,000 (36,500)	
	어린이/장애	23,000 (28,000)	
보통권 다량구매	정상가	31,000 (37,500)	*특별공연 30회 이상, 개별 입장가능
	청소년	23,000 (28,500)	
	어린이/장애	17,000 (21,000)	
단체권 (30명 이상)	정상가	27,000 (32,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17,000 (21,000)	
	어린이/장애	13,000 (16,000)	
특별일 다량구매	정상가	33,000 (39,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25,000 (30,500)	
	어린이/장애	19,000 (23,000)	
특별일 (30명 이상)	정상가	16,000 (19,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14,000 (17,500)	
	어린이/장애	10,000 (12,500)	
특별일	정상가	53,000 (64,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40,000 (48,000)	
	어린이/장애	30,000 (36,500)	
2일권	정상가	89,000 (107,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53,000 (64,500)	
	어린이/장애	40,000 (48,000)	
3일권	정상가	129,000 (157,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89,000 (107,500)	
	어린이/장애	69,000 (84,000)	
전기권	정상가	209,000 (252,500)	*특별공연(제1회) 관람, 주말 관공예이 입장가능
	청소년	150,000 (182,500)	
	어린이/장애	100,000 (122,000)	

## ‘잘 놀아야 잘 크다’

### 제11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사천시는 오는 5월 5일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1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를 약 7천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중학교 운동장과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천시가 주최하고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우수, 어린이난타 등 축하 시범 공연과 요술풍선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미술시연, 아름다운 성문화체험, 소방기구 체험마당, 교육·환

경 사진 전시마당 등 다채롭고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는 사천경찰서,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단, 경남은행,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 등 여러 유관기관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성공적인 행사는 물론, 어린이 보호와 사랑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주간인 사천교육지원청 추천으로 모범 어린이 2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 2012 사천시장배 민물낚시대회 개최

사천시와 (사)사천시낚시연합회(회장 박인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2년 사천시장배 민물낚시대회가 4월 29일 오전 8시부터 사천읍 두량저수지 일원에

서 개최되었다. 두량저수지는 최근 외래어종이 급격히 증가하여 민물 토종어종 뿐만 아니라, 각종 수생동물

## 시정 밖 소식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의 ‘이웃사랑’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학장 권일현)는 4월 10일 재학생 및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활동을 실시하였다.

김남국 교학팀장은 “학생들은 헌혈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혈액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가 된다”며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을 표방하며 개교 이래 매년 헌혈 활동을 실시하여 약 2,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지역 인구의 복지시설 방문 등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2년 연속 90% 이상의 명품 취업률(2010년 96.9%, 2011년 93.2%)을 자랑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취업 명문대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저수지내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어 외래어종 퇴치가 시급히 대두된 곳이다.

이번 민물낚시대회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퇴치를 목적으로 하며, 루어낚시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배스와 블루길 2리 합

산무게 계속결과에 따라 시상하였다.

이번 낚시대회를 통해 외래어종을 퇴치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제14회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제14회 사천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5월 3일 삼천포대교기념공원에서 자연보호가족,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특별행사로 사천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사용된 지 600주년에 즈음하여 사천환경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환경비전 선포식은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 환경위기 속에서 사천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사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환경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남해안의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밝혔다.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가 주최하고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회장 장찬옥)에서 주관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환경생태계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자연보호 14개 읍면동협의회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

한 가운데 생활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자연을 되살리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평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봉사한 자연보호 유공시민 14명과 공무원 2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사천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의제21 실천운동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 등으로 친환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제12회 사천시장애인복지증진 대회

### 장애인 가족 1,000명 참석...장애인 인식개선 계기 마련

사천시는 지난 4월 20일 11시부터 사천체육관에서 정민규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제12회 사천시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진대회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회 내용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 온 유공자(도지사 2명, 시장 10명)에 대한 표창장 전달과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지부장 정성환)에서 후원하는 백

미 50포(10kg들이)와 (사)너티 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사천시지부(지부장 최준기)에서 후원하는 자전거 2대 등 푸짐한 경품 추첨이 있었다.

또한, 사천시 관내 6개 장애인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평소 갖고 있던 기쁨을 뽐내는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특히, 늘 한결같은 애함심으로 지역봉사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천지구협의회 회원 50명(회장 조정숙)과 공군 제 3218부대 장병 40명이 자원봉사로 행사 진행을 도왔다.

## 다산(多産) 다복(多福) 편지 공모전 개최

사천시보건소에서는 손자 손녀 및 자녀에게 쓰는 출산장려를 위한 편지공모전을 지난 4월 27일까지 개최하였다.

우리사회에 가장 큰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국가의 미래를 강조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편지를 써서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산(多産)다복(多福) 편지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편지 공모전은 사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및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사천시 운동본부에서 후원했다.

### 2012년 사천시청소년문화존 무지개마당

청소년문화존이란? 청소년들의 인식적 성·일부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문화향유 능력 개발을 지향하는 시설·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의 일정한 범주의 지역적 공간

일시	내용	장소
4.21(토)	첫번째 이야기 '청소년문화존 선포식', 무지개마당(제1회) 개막식	사천시청소년수련관
5.19(토)	두번째 이야기 '청소년기초서양 예술체험', 향토문화유산(제1회) 1회 전시관, 귀족(노자화)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청소년문화의집
6.16(토)	세번째 이야기 '청소년 스타일링' 전시관, 향토문화유산(제1회) 2회 전시관, 향토문화유산(제1회) 2회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시청소년수련관
7.14(토)	네번째 이야기 '내가 청소년 제1회', 향토문화유산(제1회) 3회 전시관, 향토문화유산(제1회) 3회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청소년문화의집
8.11(토)	다섯번째 이야기 '청소년 나눔축제 - 우리(노자화)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청소년문화의집
8.18(토)	여섯번째 이야기 'Summer Cool 예술체험', 향토문화유산(제1회) 4회 전시관, 향토문화유산(제1회) 4회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시청소년수련관
9.15(토)	일곱번째 이야기 '전통놀이 체험마당', 향토문화유산(제1회) 5회 전시관, 향토문화유산(제1회) 5회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시청소년수련관
10.20(토)	여덟번째 이야기 '동아리 축제 한마당 및 폐막식', 향토문화유산(제1회) 6회 전시관, 향토문화유산(제1회) 6회 부스(전시·체험)의, 간접이야당	사천시청소년수련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70-8145-8034~5  
주최 |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사천시  
주관 |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사천시청소년수련관)

### 제90회 어린이날 행사기념 잘 놀아야 잘 크다 제11회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 사천중학교 운동장

- ♡ 아름다운 성문화 체험, 가족과 함께 부채만들기
- ♡ 월남쌈 시식코너, 예쁜배경 사진찍기
- ♡ 떡메치기, 떡나누기, 요술풍선, 풍선나누어 주기
- ♡ 투호놀이, 2인3각, 고리던지기
- ♡ 굴렁쇠 굴리기, 다리묵어 사탕먹기
- ♡ 뽕튀기, 페이스페인팅, 미술시연, 천연염색
- ♡ 병아리떼 쫓쫓쫓, 장애체험
- ♡ 세발자전거, 심폐소생술, 물소화기
- ♡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가족 체험

####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

- ♡ 우수시범, 어린이난타 공연
- ♡ 아름다운 성문화 체험, 친환경 나무 목걸이 만들기
- ♡ 월남쌈 시식코너, 예쁜배경 사진찍기
- ♡ 떡메치기, 떡나누기, 요술풍선, 풍선 나누어 주기
- ♡ 투호놀이, 2인3각, 고리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 ♡ 다리묵어 사탕먹기, 미술시연, 페이스페인팅
- ♡ 장애체험, 카프라쌓기, 편지지 나누기
- ♡ 칠교놀이, 페어로 만들기
- ♡ 구강교육, 심폐소생술, 물소화기

일시 | 2012.5.5(토) 09:30~13:30  
장소 | 사천중학교 운동장,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  
우천시 |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주최/주관 | 사천시/사천시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우주항공소년 또록이의 항공 이야기-101>

###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 Peace-Eye

조기경보통제기는 조기경보기와 통제기를 결합한 용어로서 공중감시, 식별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기와 요격관제, 전장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통제기의 기능을 통합한 항공기를 말한다.

AWACS(Airborne Warning & Control System)는 E-3, E-767 기종에 대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의미하는 보잉(Boeing)사의 고유명칭이며, 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의미하는 통상 명칭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란 항공기에 공중감시레이더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조기경보, 항공기 통제, 전장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지휘통제 체계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늘에 떠있는 중앙방공통제소”로 불린다.

Peace-Eye는 대한민국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별칭으로서 공군 자체 방공작전 지원은 물론, 해상작전, 근

접항공지원작전, 특수작전 등에 투입되어 전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은 자주적 조기경보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E-737 4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11월 기종결정 이후 약 5년만인 2011년 9월에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으며, 올해 말까지는 4대 모두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eace-Eye는 상용 여객기인 보잉737-700 동체 위에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MESA) 레이더를 장착해 피아식별, 전자경보, 자체방어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최대고도 12.5km, 최고시속 마하 0.78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7,000km이다. 조종사 2명과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길이 33.6m, 높이 12.5m, 폭 34.7m, 항속거리 6,670km, 최대 이륙중량

77t, 체공시간은 8시간이며, 대당 가격은 약 4,000억 원이다.

Peace-Eye는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수행하는 평화의 임무를 대내외에 강조하는 한편, 포괄적인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임무 수행에 가장 부합되는 이미지로, 2008년 2월 공군이 일반인 및 공군장병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여론조사 및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E-737과 동일 기종을 운용하는 호주에서는 자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별칭을 Wedgetail(호주에 서식하는 독수리)이라 부르며, 터키는 Peace-Eagle로 부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김형래

## 더 있는 것

겨우내 칙칙하던 하늘이  
아침빛처럼 또렷해지고,  
군데군데 남은 꽃망울의 숨결이  
오히려 더욱게 느껴지니  
이제야  
동요 속 꽃동네가 펼쳐질 것 같은  
시골은 아단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예전과는 다르고,  
허무는 것은 금방이라도  
바르게 쌓기는 너무 힘들기에,  
세상을 맡기신 이의 사랑을  
빠져리게 느끼기에,  
뻔할 회한으로 벌써 마음이 아립니다.

선기가 며칠 남지 않아  
농부도, 어부도,  
허리를 곧추 세우고 절을 받고,  
손을 잘 내어주지도 않습니다만,  
‘없는 이, 주머니에 손 먼저 가듯이’  
억지스런 꽃집들이 애처롭게 보입니다.

송이째 뚝뚝 떨어져  
처절함으로, 단아함으로,  
질푸른 잎사귀 속 선홍색 꽃잎과  
황금색 꽃밥보다,  
노래로 더 잘 불려지는 동백꽃 진자리에서  
부활절의 죽을 너머  
더 크게 있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동금동 / 김일현

## 봄비. I

가냘프게 예쁜 꽃잎들이  
나무가지를 벗어나  
톡톡 튕기는 바람되어 날린다.  
구름도 흠뻑 젖은 하늘은  
급방이라도 우르르 쏟아질 것만 같은데  
제지리를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헤이릴 수조차 없는 미로를 만들어낸다.

춘삼월도 넘어 대지는 물이 올라가는데  
겨울인지 봄인지도 모른 채  
새파란 떡잎을 마구 내민 나무와  
작은 봉오리를 불쑥 내민 꽃들이  
철딱서니 없이 제 몸둥이를 비비며 깔깔댄다.

봄비가 대지에 내려와  
떼굴떼굴 뒹굴며 흠뻑진다.  
왔다가 가는 현실과 과거사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이루지 못한 젊은날의 꿈과 함께  
깊은 눈 세상 속으로 줄줄줄 흘러만 간다.

봄비가 시나브로  
그들 곁을 맴돌며  
음흉한 미소를 흘리면서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 자리를 찾느라  
온종일 바쁘기만 하다.

울산광역시 동구 / 조승호

## 삼천포로 가라

그대 삼천포로 가라  
백두대간 허리를 뚫고  
국토의 심장을 따라  
남도행 고속도로를 타거든  
동쪽 진주로 빠지지 말고  
서쪽 하동으로 빠지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  
한려수도의 한복판  
삼천포를 향해가라

오누이의 정을 나누는 곳  
바다의 고향  
한려수도의 꽃봉오리  
삼천포로 그대여 가라

쪽빛보다 푸르른 바다  
하늘을 수놓는 무지개빛  
삼천포대교 구름다리  
목섬, 씨앗섬, 장구섬 -  
이름도 맑고 정다운  
조막만한 귀여운 섬들이  
도란도란

뒤리서 삼천포로 빠진다 했던가  
길을 가는 나그네든  
낮익은 다정한 이웃이든  
휘어어 휘어어  
모든 이 손짓으로 불러모아  
배불리 먹여주고  
한아름 포근히 안아주는  
삼천포 정 많은 인심에  
그대여 한껏 빠져 보라

시인 / 이기순

## 봄

구불 진 돌담길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발 들어 놓으며  
봄을 깨운다.

햇살따라 살며시 대지에  
봄이 내려와 놓고 있다.

논두렁에 파릇파릇 피어나는  
냉이의 향에 취해 꿈틀거리며  
긴 겨울 토해내고 겨울의 껍질 벗겨 낸다.

비탈진 응달에 하얀 눈꽃  
눈물 흘리며 꼬랑지 감추고  
떠난 자리에 아지랑이 내려와  
앉는다.

나뭇들 동실동실 초사위에

정동면 보건지소 나뭇섬

## 쪽 빛

아무도 없다.  
내가 앉은 자리  
때늦은 썸바귀꽃 몇 송이 막 피어나고  
신선한 아침 햇빛 입을 대다  
기절한다.

금이 선다.

아무도 없다.  
내가 앉은 자리  
무심히 조각돌을 던지면  
팽팽한 수평선이 입을 벌리고  
바다는 서슴진 유리처럼 피 어린

아무도 없다.  
저 물 밖, 물영이로 떠돌다 온 세월  
이젠 떠나지 않으리라.  
내 영혼 속에 잠든 바다  
쪽빛 물발로 깨워서 당신의 이름  
뜨겁게 부르리라.



이홍동 / 전명희

### 삶의 길잡이

## 안전거리 확보는 생명선이다.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면 도로가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가 되다보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자신의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몇 달 전 구마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사고가 있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선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였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안전거리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를 뒤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선행하는 차량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자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로 볼 것인가.

이론적으로 시속 100km시 약 85m 거리가 안전거리 확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운전자가 스스로 알아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가 된다.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 이나영

## 이해의 선물

벚꽃의 만개로 동네의 이곳저곳은 화려하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을 움츠려있던 몸과 마음이 벚꽃으로 인해 활짝 피는 요즘이다.

게다가 새벽에 봐도 이쁘고 오후에 보면 더 이쁘고 저녁의 가로등에 비친 벚꽃은 더 없이 사랑스럽다.

벚꽃 밑을 지나 갈 때면 빨강 머리 앤이 처음 초록색 지붕 집으로 가던 그 길을 걷는 것 같아 마음이 들뜨곤 한다.

그리고 중학교 땀가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이해의 선물'이라는 글이 떠오른다. 대충 줄거리는 이러하다. 어린 주인공이 돈이라는 것을 모를 때 벚꽃의 열매인 버찌씨를 가지고 위그든(이름이 확실치 않다)씨가

운영하는 사탕가게에 가서 버찌씨를 주고 사탕을 사왔고, 주인공이 성장하여 열매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중 어릴 적 그 위그든씨의 선물이 이해의 선물이었다고 주인공 역시 자신의 가게에 온 어린남매에게 이해의 선물을 준다.

한사람의 이해가 상대방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꼈던 이 내용이 자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와 친구간의, 선생과 제자 간의, 이웃과 이웃 간의, 후배와 선배 간의, 동료와 동료 간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물질적인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의 즉 마음의 선물을 주는 것이란 것을 .....

영어로 present 는 선물이라는 명사와 현재의 라는 형용사이다.

몇 년 전 외국의 작가가 present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여 인기를 얻었다. 즉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고.....

요즘 사회적인 갈등과 논쟁들, 아니 가까이든 내 주변의 소소한 다툼들에 있어, 이해가 선물이고 그 선물은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금동 / 박은희

## 하천의 넉넉한 품안

남양동 입내마을 하천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작은 텃밭을 가꾸어주고 있다고 허락한 것이다.

매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에서 정기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해왔지만 그동안 풀이 무성히 자라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천가에는 텃밭 조성은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을테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큰 배포와 융통성으로 하천가의 자연환경 정화는 물론 야채 등의 재배로 주민들의 생활 경제에도 큰 보탬

이 되리라 본다.

나도 퇴근 시간 이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하천가에 작은 텃밭을 마련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라 지렁이며 굼벵이, 두더지, 두꺼비까지 살고 있고 흐르는 맑은 시냇물에는 다슬기며 소금쟁이, 참게도 보이니 어린 자들에게도 자연 공부의 기회가 된다.

그 뿐이 아니다. 때맞춰 텃밭을 일구지 못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채소가 있으면 언제든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으니 정을 나누는 텃밭 즉, 행복한 마음의 텃밭까지 이룰 수 있어 참으

로 한량없는 기쁨이다.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어 보니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 큰 활력을 준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작은 호미를 들고 하천가의 텃밭으로 오는 모습을 보니 행복의 길이 따로 없음을 더욱 느낀다.

작은 텃밭의 가꿈이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넘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하니 하천의 넉넉한 품안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별리동 / 김성



# '2012사천세계타악축제' 개최 일정 확정

## 8월2일부터 4일간 삼천포대교공원일원에서 열려

사천시는 2012년 사천세계타악축제 일정을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성공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4월 23일 사천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 김경숙 도원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17명의 집행위원을 추천했다.

축제총괄 지휘 예술총감독에는 (사)민속음악원 이사장이며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60세,

1978 사물놀이 창단)씨가 추천되어 축제를 추진하게 됐다.

축제 진행을 맡은 이광수씨는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의 추진 방향을 전문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사천만의 특징(먹거리, 놀거리 등)을 잘 담아 전 세계의 타악 연주자와 함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승화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시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사무소를 개소,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가 8월2일 성대한 막을 올린다. 사진은 지난 2008년 공연 모습.

## 제15회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 시인대회 개최

### 이시영 시집 문학상 선정...21개 단체 참가 경연

사천시는 한국 현대시의 대표 서정시인 박재삼의 문학 세계를 널리 알리고, 박재삼 시인의 발자취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후세 교육과 지역문화 창달로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문인들에게 사천의 바다와 자연환경을 소개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제15회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으로 서금동 소재 노산공원 내 박재삼문학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행사는 박재삼시사랑회에서 주관한다.

주요 초청문인은 신경림, 구중서, 허영자, 송수권, 김명인, 이시영, 강희근, 이우걸, 이하석, 이은봉, 이해원, 남송우, 박노정, 김사인, 김용락, 공광규, 유성호, 손택수, 김경주 등이며, 행사 참가 문학단체로는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현대불교문인협회 등 21개 단체가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신설되는 <제1회 박재삼문학상> 수상작에는 이시영 시인의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창비)가 선정됐다.

이시영의 수상 시집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박재삼의 시 정신에 근접할 만한 시적 정서를 서정과 서사의 형식을 넘나들며 육화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사위원장 신경림은 "이시영 시의 비범성은 언어의 밑도가여 백에 의해 더욱 짙어졌듯 느껴지는 데서 두드러진다. 서정시가 갖는 본연의 정서와 미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떠올려 우리 시대의 진실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점을 높이 샀다"고 평했다.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에는 고립되고 난해한 현실적 언어의 추세를 거스르는 독특한 운율이 창출되어 있다. 최근 우리 시 풍토가 보여주

는 난맥상에서 벗어난 그의 시는 현실의 정면을 향해 서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우리 시를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제1회 박재삼문학상>의 수상작으로는 '김룡 시인'이 선정되었다. 이 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지역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등단 10년 미만 시인에게 주어지는 작품상이다.

심사위원 김명인은 "고향 사

천을 유난히 사랑하였으며, 젊은 시인들을 즐겨 격려했던 박재삼 시인 생시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이 상은 그의 명성에도 어울린다 하겠다. 이 상을 계기로 경남의 문예가 르네상스로 접어들길 기대해 본다"며 상의 취지를 논했다.

시상식은 박재삼문학제 기간 중인 6월 9일 사천시 서금동 소재 노산공원 내 박재삼문학관에서 열린다.

#### <주요 행사내용>

문학상	제1회 박재삼문학상 및 박재삼 경남문학상
백일장	박재삼 신인문학상, 제9회 청소년문학상, 학생 시백일장
세미나	박재삼문학제 세미나(주제-박재삼 시의 사회의식)
발간사업	박재삼문학상 및 사천문학상 수상집
전시행사	다포전시회
공연행사	시극 <풀만대장정의 노래>
기타	전국 문인학생 바둑대회문학제 참여 문인 대상 '내가 좋아하는 박재삼'



## '사천물' 대도시 입맛 사로잡는다

사천시 사이버연구회에서는 사천물 홍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개최하는 "2012년 새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여, 사천시 대표 농특산물로 대도시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사천시는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주관하는 "2012년 새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초청을 받아 사천시 사이버연구회를 주축으로 토마토, 파프리카, 참다래, 기능성 쌀, 전통장류, 견과류 등 사천시 대표 농특산물 7품목을 전시, 판매 하였다.

특히, 평소 사천시의 염선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접하기 어려웠던 대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직거래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매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사천물(www.4000mall.com)은 사천시 사이버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사천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개,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 사천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사천물(www.4000mall.com) 홍보에도 노력을 다하여 사천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대도시민 대상 직거래장터를 계기로 사천물 및 사천시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항공도시 대형 꽃탑 '우뚝'

사천시는 사천의 관문인 남해안고속도로 사천IC 진입로에 아름다운 대형 꽃탑을 지난 4월 12일 설치했다.

금번 설치된 꽃탑은 우주항공산업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천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봄을 맞이하여 사천을 찾는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사천 나들목에 설치했다.

또한, 우주항공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지름 2.4m의 침성대형 꽃탑과 주위에 32㎡의 화단을 만들었다.

시는 이어후에도 시내 주요 지점에 3~4개의 대형 꽃탑을 설치하여 "관광사천" "우주항공도시 사천"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경남도민체육대회

를 맞아 관광사천을 알리는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꽃벽 및 난간걸이 화분을 비롯한 많은 꽃 조형물을 시내 주요지점에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 거리를 조성하고 이번에 설치한 꽃탑도 계속 유지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꽃양묘장(향촌동 소재)에서는 매년 100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각종 축제 때마다 축제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행사장 주변에 아름답고 특색 있는 꽃장식을 하고 있으며, 봄을 맞아 봄꽃의 대명사인 팬지를 비롯해 튼실, 석죽 등 봄꽃 12천본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 외국인 유학생 사천 문화관광 투어

## 진주지역 대학교 대상...잠재적 국제 홍보대사 역할 기대

사천시는 인근 진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관광명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외국인 관광객유치 등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9일 한국국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시작으로 사천시 문화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진주지역의 경상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진주과학기술대학교 등 3개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6개국 509명으로 파악하고, 각 학교별 학사 일정에 맞춰 학교별로 2회, 총 6회에 걸쳐 사천시 관광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의 주요 코스는 사천향교, 향공우주박물관, 선전리성과 조영군총을 탐방한 후, 시청 구내식



사천시는 4월 19일 한국국제대를 시작으로 사천시 문화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시의회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며, 오후에는 삼천포유람선 관광과 삼천포대교 및 초양도에 조성한 유채밭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한려수도의 중심지에 있는 사천의 절경에 흠뻑 도취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어로 사천관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위상 제고는 물론 유학생들이 문화관광체험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국제관광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2012 상반기 농촌 일손돕기 운동 추진

사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일손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농촌일손 돕기 운동을 5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20일)를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노약자, 부녀자, 국가보훈대상,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일손부족 농

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마늘수확, 단감·배·포도 등 과일수확과 봉지 씌우기, 농로정비, 폐비닐수거, 비닐 하우스 철거, 환경정비 등이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하여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에 설치하여 일손지원 희망

자와 일손부족 농가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각종 재해와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 일손이 많이 부족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 공무원은 물론 군부대,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자발적인 일손지원 참여협조를 당부했다.

#### 사천시 5월중 체육행사 안내

대회명	내용
제9회 사천시장애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 기간: 2012. 5. 5(토) ~ 5. 6(일) *개회식: 5. 6(일) 10:30 ○ 장소: 삼천포보조죽구장 ○ 주관: 사천시패러글라이딩연합회
제4회 사천시장애 전국등산대회 및 제34회 와룡산 비룡제	○ 기간: 2012. 5. 12(토) ~ 5. 13(일) *개회식: 5. 12(토) 18:30 ○ 장소: 용두공원 ○ 주관: 사천시산악연맹등산연합회
사천시민 건강걷기 대회	○ 일시: 2012. 5. 19(토) 06:30 ○ 장소: 사천초전공원 ○ 내용: 시민건강 걷기대회, 행운권추첨 ○ 대회 코스: 5.5km - 초전공원 → 유전사거리(좌회전) → 하수도사업소 → 해안도로 → 방지마을 → 게이트볼구장 → 태양유전 → 초전공원
제3회 사천시장애 전국(프로-아미)댄스스포츠대회	○ 기간: 2012. 5. 26(토) ~ 5. 27(일) *개회식: 5. 27(일) 14:00 ○ 장소: 삼천포체육관 ○ 주관: 국민생활체육사천시댄스스포츠연합회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취업알선창구를 개설 관내 공단 현장에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수강생을 수시모집 합니다

모집강좌	모집인원	요일	시간	수강료	
어학	일어(기초반)	20명	월, 수	18:30 ~ 20:30	120,000원 (12주)
	일어(중급반)	20명	화, 목	19:20 ~ 21:20	150,000원 (12주)
취미	요가(오전반)	25명	월, 화, 목, 금	10:00 ~ 11:00	45,000원 (4주)
	예쁜글씨	20명	목	10:00 ~ 12:00	60,000원 (12주)
	아동미술 베스트맘	20명	화	10:00 ~ 12:00	60,000원 (12주)
	노래	120명	금	14:00 ~ 15:30	30,000원 (12주)
야간	서예	20명	수	18:30 ~ 20:30	60,000원 (12주)
	요가(오후반)	25명	월, 화, 목, 금	18:30 ~ 19:30	45,000원 (4주)
	문인화	20명	화	18:30 ~ 20:30	60,000원 (12주)

- 취업 및 수강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신청
- 수강료 납부 : 농협 351-0225-6541-93 (예금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입금시에 본인이름과 강좌명을 기재해주세요. 예)김사천/서예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854-7771  
www.sccenter.or.kr

6·25전쟁 남북피해자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추모사업과 생사확인·송환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고처: 거주지 시·군·구청 / 신고문의: 1661-6250

